

[ 사회 ]



지난 1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 소속 노조원들이 11일 오전 광주시 하남산업단지 도로에 대형트럭을 세워놓은 채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하남산업단지 9번로 인근 공원에 서 노숙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 2년전 물류대란보다 타격 클 듯

## 총파업 D-1... 묘수없어 장기화 우려 전남 화물연대 오늘 전격 파업 돌입

화물연대가 13일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운송거부는 지난 2006년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때보다 여파가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 전남지부는 총파업 일정과 상관없이 12일 새벽 0시를 기해 1천400여명 조합원 전체가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 파업 돌입 =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지난 10일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삼성광주공장의 수입 및 내수물량과 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공장의 수출 전자제품을 운송하는 광주지부 1지회 소속 화물차 320여대의 운행을

중단했다.

금호타이어지회와 기아차의 수출을 맡고 있는 글로비스지회도 오는 13일 본조의 지침에 따라 자체 운송단가 협상에 관계없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화물연대 전남지회가 12일 전격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광주지역 삼성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 기아차의 수출차질은 물론, 여수국가 산업단지, 광양 컨테이너 부두, 광양제철, 순천 하이스코 등의 물류운송 차질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장기화 가능성 커 =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장기화 가능성이 크

다. 정부는 '고유가 대책' 이외에는 특별히 화물차주들을 달랠 방책이 없다. 화물연대는 "경유가 인하, 운송료 현실화, 표준요금제 시행 등 근본적인 해결책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탁운송 체계에서는 화주가 직접 나서지 않는 한 운송료 현실화는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비조합원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파업의 특징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화물차는 1만1천여대(광주 4천대·전남 7천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화물연대 광주지부의 경우 지난 4월까지 조합원의 수가 850명이던 것이 최근 1천여명으로 늘어났고, 전남지부도 1천여명에서 1천400명으로 조합원이 늘었다. 비조합원들의 동요가 커지며 관련 기업들은 고민에 빠졌다.

기업들은 지난 2006년 총파업 당시 비조합원들로 구성된 대체차량을 투입시켰었지만, 지금은 비조합원들의 파업참여가 많아져 이마저도 힘들게 된 것이다. 삼성광주공장 등 업체들도 비조합원 화물차주에게 웃돈을 쥐가 직접 나서지 않는 한 운송료 현실화는 어려운 실정이다.

김성호 화물연대 광주지부장은 "조합원 비조합원을 떠나서 화물차주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총파업 이후 오는 21일까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만약 현실적인 타협안이 없으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옛 도청 원형 보존해야" 5월단체 공식입장 표명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와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구속 부상자회 등 5월 관련단체는 11일 광주민중항쟁의 상징적 공간인 옛 전남도청의 건물보존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5·18 민중항쟁 유적지 옛 전남도청의 건물보존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5·18의 대표적 유적지인 옛 도청 본관건물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정에서 철거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옛 도청 본관은 5·18 최후 항전지로 이에 상응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문화중심도시 조성 추진기획단은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종행기자 golee@

## 갯돈 1억여원 '꿀꺽' 장흥 40대 여성 구속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낚시계를 운영하다 억대의 갯돈을 챙겨 잡혔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본부 5월15일자 8면〉 장흥경찰은 11일 갯돈 수 억원을 가로챈 이모(여·45·장흥읍)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장흥읍 토요시장 내 소상공인 등 영세상인 15명을 상대로 낚시계를 하면서 갯돈 1억6천720만원의 가로챘다.

경찰은 이씨가 여러 개의 계주를 맡고 있는 점으로 미뤄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중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국유지 가로채고 청부살해 기도

# 전직 세무공무원 징역 15년 중형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국유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이를 매각해 환수보상금을 챙기고 지인을 청부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판 봉이 김선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행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이모(78)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범행을 돕거나 공모한 7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4년을 선고하고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워낙 불량한데다 범행 전력과 규모·형태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서 회유대상 공무원과 사기 피해자 등 2명이 자살한 점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고령의 장애인 피해자를 청부살해하려던 전지 9주의 중상을 입힌 점 ▲피고인의 제의로 사건에 연루된 친·인척과 지인들이 오랜 기간 형사사건에 휘말려 고통을 받은 점 ▲범

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중형 선고 사유로 제시했다.

이씨는 2001년 4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친인척 등의 명의로 국유지 605필지 214만여㎡에 대한 특례매각 이익금과 환수보상금 191억원을 챙기고, 2004년 3월께에는 자신의 범행을 방해하는 김모(81)씨를 청부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971~1974년, 1980~1985년 세무서 관제업무를 담당하면서 여의도 면적(840만여㎡)의 19배에 달하는 1억5천700만여㎡의 국유지를 불법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란 별칭을 얻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송골송골 땀방울 6월 12일 (음 5월 9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전국날씨

광주	구름 조금	19~31℃
주요	구름 조금	18~27℃
포서	구름 조금	19~25℃
안도	구름 조금	18~26℃
구	구름 조금	17~32℃
남	구름 조금	17~27℃
해	구름 조금	17~28℃
장	구름 조금	16~28℃
고	구름 조금	16~31℃
순	구름 조금	18~29℃
영	구름 조금	17~29℃
진	구름 조금	16~31℃
진	구름 조금	18~31℃
남	구름 조금	16~31℃
해	구름 조금	16~22℃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0.5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만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8:54 썰물 < 01:55  
21:45 14:35  
여수 밀물 < 03:42 썰물 < 10:14  
16:57 22:49

▲해돋이 05:17 ▲해질 19:47 ▲달돋이 14:01 ▲달질 01:04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날씨						
최저/최고	18/31	18/27	18/27	18/28	18/28	18/27

## "무단 용도변경 주택도 임대차 보호대상"

저당권이 설정된 뒤 무단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의 주택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2단독 최인규 판사는 11일 S농협이 광주시 동구 학동 모 원룸 세입자인 이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배당 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주택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돼야 한다"며 "피고 등이 임차한 부분은 실사 불법 용도변경에 의한 것이더라도 방뿐 아니라 주방, 화장실까지 설치돼 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S농협은 지난 1999년 1월 28일 송모씨에게 2억8천만원을 빌려 주면서 송씨가 갖고 있는 광주시 동구 학동 4층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대출 당시 이 건물 1~3층은 사무실, 4층은 주택이어서 농협은 1~3층에 주택임대차 보호를 적용하고 4층을 임대차 보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송씨는 대출금을 받은 뒤 건물 전체를 원룸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뒤 28명에게 나눠 임대했다. 농협은 "저당권이 설정된 뒤 무단 용도 변경된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농기계 보조금 부당 지급 공무원 11명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무안군 공무원 김모(40)씨 등 공무원 11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3~2005년 사이 무안의 7개 면사무소에

서 마을 생산 농기계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기계를 구입하지도 않고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70명에게 농기계 공급 여부 등 현지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완료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2억2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자치단체의 농기계 공급을 M업체가 독점 공급한 점 등에 주목하고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나갈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워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드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든도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현형)  
면역 강화

비타민 A, C, E 및 보충  
-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예방  
- 눈의 건조감 완화, 안구건조  
- 탈모, 피부미용, 기력 증진, 스트레스 완화, 노년층의 건강  
- 면역력 강화, 기력 증진  
- 항노화, 피부미용, 기력 증진, 스트레스 완화, 노년층의 건강  
- 노년층의 건강, 기력 증진

아연의 보충  
- 아연은 면역력 강화, 기력 증진, 스트레스 완화, 노년층의 건강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KUNIE 국제약품**  
http://www.kuniefarm.co.kr